

한국의

종돈

개량에 앞장설 터



전 태 식
(덕영종돈장 농장장)

“검정 전문 요원 교육!”

설레이는 마음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터득한다는 의미에서 5월 26일 아침 농장을 뒤로 한채 검정소로 출발했다.

달리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창밖에 펼쳐지는 농촌의 자연미를 감상하며 생각에 젖어들었다.

한국 양돈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겠다고 자부하면서-

교육장소인 대한양돈협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가 위치한 경기 이천군 마장면 이치리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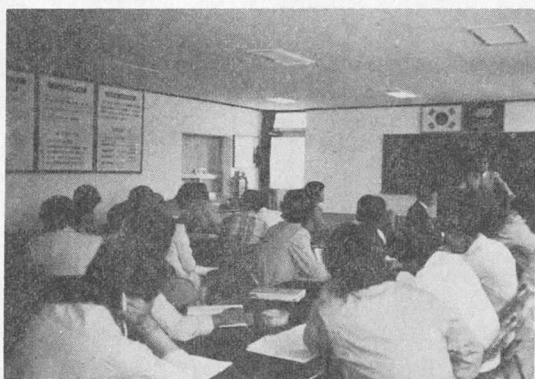
개강식에 이어 협회 한 전무님의 특강으로 제 1차 검정전문요원 교육은 막이 올랐다.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무엇인가 한

국 양돈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줄 수 있는 전사들임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한국의 양돈 산업도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계를 바라보며 농장검정을 통한 종돈개량으로 우수한 혈통과 형질을 보급하는 최일선에서 후회없고 또한 영광스런 종돈장으로 육성·발전시켜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길은 내 인생에 있어 보람찬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 양돈업계에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싶다.

① 육종의 기본원리 ② 종돈의 등록 심사 ③ 검정소 견학 및 실습 ④ 능력 검정 및 종돈선발 ⑤ 종돈에 있어서의 방역 ⑥ 돼지의 교배법과 잡종강세 등등 교육의 타이틀을 보듯이 이것은 검정전문요원 교육뿐 아니라 우리 양돈가 모두에게 교육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할때 비로소 종돈개량 및 육질개선등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며, 빠른 시간내에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가 풀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중 종돈장으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종돈의 등록과 심사 요령으로서 농장 생활 14여년 세월속에 알고 지내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시대변천에 따라 종돈 심사 방법 요령도 변화하였으며 심사 표준에 의거 심사방법을 배우고 그 기술을 닦아 감식의 해안을 기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되었다.

교육을 받은 요원의 한 사람으로 농장 검정을 통해 양돈가 모두에게 끌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나의 희망이요, 소원이다.

좋은 돼지를 보존·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소의 종돈장들이 무조건 외제선호 사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외화를 절약하면서 농장자체의 개량과 농장간의 우수한 혈통을 보유한 종돈교류를 통해 종돈개량을 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수입허가로 무자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정부차원에서 또 협회차원에서 철저히 통제하면서 정말로 질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도입하는데 정부·협회가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한국 양돈은 일보 더 전진할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며 새로운 양돈 기술을 알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느낀 나의 마음가짐은 우리 기술이 낙후가 되어있고 양돈 기술이 거의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기술등을 모방하고 있어 한국적 기후와 풍토, 환경에 맞는 기술 및 돼지를 개량해야겠다는 것을 재삼 느꼈다.

종돈장의 궁극적 목표는 종돈개량이고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영리추구가 가능한 것이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좋은 품종의 돼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하루빨리 농장 검정이 시행되어야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만이 이를 뒷받침하여 주리라 생각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육을 주관한 협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비록 짧은 2박3일이 우리 검정전문 요원들에게 헛됨이 없을때 이 교육을 주관한 검정소나 각 농장을 대표한 요원들에게 후회없이 보람을 마음속에서나마 느끼었을 것이다.

좀더 아쉬웠다면 짧은 2박3일과 분임토의를 통한 전체적인 토론시간, (이 시간의 토론 내용은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월간 양돈지에 게재하여 참석치 못한 양돈인에게 전하여 주었으면) 그밖에 오락을 통한 단합등등 이것은 협회가 주관이 되어 우리 양돈인 전체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종강식에 이어 우리 교육은 1차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교육을 통한 아니 더 진일보하여 양돈가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알고 몰랐던 지식을 교환할 때 우리 한국 양돈업계는 충실히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로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행동을 실천할까?

방향 설정을 나 나름대로 생각하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덕영종돈장으로 발길을 돌렸다.